



		<h1>보 도 자 료</h1>			
					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	총 2쪽	
배포일자	2022. 1. 18(화)		담당부서	한국등산·트레킹지원센터	
담당과장	숲길정보기반구축실장 유하준(042-620-6340)		담당자	숲길정보기반구축실 박은혜(042-620-6341)	

“등산에서 걷기(트레킹)로” 야외활동 유행이 바뀌는 중

- 등산은 38%, 걷기(트레킹)는 55%, 3년 새 걷기를 선호하는 인구 9.3% 증가 -

- 한국등산·트레킹지원센터(이사장 전범권)에서는 ‘2021년 등산·걷기(트레킹) 국민의식 실태조사’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.
- ‘2021년 등산·걷기(트레킹) 국민의식 실태조사’는 건전한 등산·걷기 문화의 확산을 꾀하고 활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2021년 10월 25일부터 11월 12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79세 이하 성인 남녀 1,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.
 - 조사 항목은 등산·걷기(트레킹) 인구 규모 및 활동 빈도, 특성, 소요시간, 인식 및 태도 등이며, 표본오차는 95% 신뢰수준에서 $\pm 2.3\%$ 이며, (주)쌍크 컨슈머에서 조사를 수행했다.
 - 조사 결과 '21년 등산·걷기(트레킹) 활동 인구는 전체 성인 남녀의 77%인 3,169만 명으로, '18년도 조사결과(71%) 보다 6% 증가하였다. 등산·걷기(트레킹) 인구를 구분한 결과, 등산 인구는 '18년도 56.4%에서 8.5% 감소한 1,972만 명(47.9%)이며, 이는 대한민국 인구(5,185만 명)의 38%에 해당한다. 반면, 걷기(트레킹) 인구는 '18년도 59.4%에서 9.3% 증가한 2,835만 명(68.7%)으로, 대한민국 인구(5,185만 명)의 55%에 해당한다.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들의 야외활동이 등산에서 걷기(트레킹)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.
- 전범권 이사장은 “이번 조사를 통해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2021년 등산·걷기(트레킹) 인구가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,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한 등산·걷기(트레킹)를 위한 프로그램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

- 한국등산·트레킹지원센터에서는 2008년 이후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, 이번이 네 번째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등산·트레킹지원센터 누리집(www.komount.or.kr)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숲길정보·기반구축실(042-620-6340)로도 문의할 수 있다.

	붙임파일 : 해당 없음. 첨부파일 : 사진자료 2부.	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